

“죽비로 과오 고치자”

조계종 스님 1447명 정부 쇄신 촉구

하안거 기간 MB를 깨우는 장군 죽비가 내려졌다.

조계종 스님 1447명은 수행에 매진하는 하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안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통해 MB정부 쇄신을 엄중히 촉구했다.

조계종 총회위원 및 각 교구본사 중진 스님, 실천불교승가회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대중결사 등 각 단체 소속 스님 1447명은 6월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법타 스님(前 은혜사 주지)을 비롯해 법안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현각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오 스님(청정승가대중결사 대표) 등 각 불교단체 수장 10여명

에서 “MB정권 하에 불교는 ‘금치산자’로, 국민은 실험실 청개구리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과감히 죽비를 내려 지난 2년 간 행정부 과오를 바로잡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3년을 준비하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러진 질의응답에서 법안 스님은 “시국법회를 추진할 단체들을 묶어 대응에 나서고, 교계 각 단체들은 7월 2일 조계종 전국결의대회서 사회현안 문제가 다뤄지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며 향후 강경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 대중 일동은 정부 각성을 상징하는 ‘죽비’를 조계사 삼존불에 봉안했으며, 조계사 일주문 앞에 자리한



조계종 스님 1447명은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국선언을 한 후, 정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죽비를 삼존불에 봉안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이 참석했으며, 명진(봉은사 주지), 혜자(도선사 주지), 수경(화계사 주지) 등 주요사찰 주지, 총회위원 42명 등을 비롯한 스님들은 서명

으로 동참했다. 이날 조계종 스님들은 “독단과 거짓의 행정부를 선택한 어리석음이 2년도 되지 않아, 자유가 억압되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왔다”며 “하안거 결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모인 우리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로 MB정부 쇄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노 前 대통령 서거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및 집권 여당 사과 △집회 인본자유 보장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배려 △4대강 사업 중단 △자연공원법 개악 중지 △대북강경 노선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타 스님은 여는 말

“운백학자화국민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3000배 등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불교계 시국선언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천주교 사제 1000여명도 같은 날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국토론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18일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회자 1000인 선언’을 했다.

이어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은 22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부터 각 종교 별 순차적으로 10~30일씩 ‘생명 평화세상을 여는 종교인 100일 기도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숲길 걸으며 ‘나’를 만나자

트레킹 인기에 사찰림 걷기 등 숲 체험 프로그램 ‘주목’

휴대폰 배터리가 깜빡깜빡 방전을 알리듯 심신이 처질 때, 짙푸른 신록 속을 거닐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녹색물결과 흙내음 속에 충전 막대는 다시금 차오른다.

초록이 울트는 6월, 시민단체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숲’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숲의 종교’인 불교도 이에 맞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레킹 등 체험현장 붐들

산과 들을 따라 떠나는 사색여행, 트레킹(trekking)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오솔길과 생태탐방로를 걷는 트레킹은 각 지자체가 코스를 개발하는 등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는 6월 17일 북한산 등 서울을 감싸고 있는 8개 산을 이어 2011년까지 137km의 트레킹 코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이 직접 생태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성북 정릉동에 ‘북한산 숲 체험장’도 문을 열었다.

제주도도 최근 한라산 국유림을 통과하는 ‘사려니 숲길’을 생태관광 트레킹 코스로 개발했다. 15km에 달하는 ‘사려니 숲길’은 유채꽃과 돌담길이 200km 12개 트레킹 코스로 펼쳐진 ‘올레길’과 함께 많은 이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

지리산에는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을 잇는 30km 트레킹 코스인 ‘지리산해부터 열렸다. ‘산사람 길’ ‘백련사 오르는 길’ 등 2011년까지 300km에 걸쳐 지리산을 빙글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산행체험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도 열렸다. 지난 2일 북한산 숲유치원 개원에 이어 울

해 안 인천 청량산에도 숲유치원이 개원된다. 현재 생태보전시민모임이 북한산에서 ‘숲동이 놀이터’, 숲 연구소가 ‘숲유치원’을 열었으며 숲해설가협회는 일반인을 숲해설가로 키워내는 아카데미를 개최해 주목 받고 있다.

#불교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숲과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에 머무는 사람’이란 뜻의 ‘아라냐카(aranyaka)’로 불렸다. 숲인 ‘아라냐’가 중국에서 ‘사(寺)’, ‘암(庵)’으로 바뀌었 듯 숲과 사찰은 둘이 아니었다. ‘출가’와 ‘입산(入山)’이 같은 의미기에 수행자들은 우리 산하를 지키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현재 지역 각 사찰은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 내소사 ‘별산반도 트레킹’, 예산 수덕사 ‘가야산 백제의 미소길 걷기’, 평창 월정사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 따라 걷기’, 제주 관음사 ‘제주 올레길 걷기’, 남원 실상사 ‘지리산 숲길 명상’, 밀양 표충사 ‘대나무 숲 참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 환경연대도 매년 전국 명산에서 ‘생태풍수 산사기행’을 개최해 ‘숲’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교계에서는 산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해 역량을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흥사 어린이 숲속 마을’과 사찰생태연구소가 연 1회 진행하는 숲명상 지도자 양성교육이 좋은 예다. ‘어린이 숲속마을’은 약 한 달 간 어린이들에



부안 내소사의 별산 트레킹은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인기 프로그램이다.

게 자연과 산사생활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자양성교육’ 또한 사찰수행환경 보호까지 이끌어내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불교계는 현재 사찰환경이 크게 훼손당하는 각종 사회현안에 부딪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사찰환경 보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린이법회, 사찰 부속 각 교와 연계한 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환경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노덕현 기자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도 모 금 액: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영혼이 잠깐 이는
눈 먼 무리 속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을 발한다.

현대불교 @ 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익시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기초법(유법)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집대가 있는 운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전국교구 소속 운문사

얼대과일 푸리아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할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공

공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우리종단은 1968년 공원제도 시행 당시부터 사찰경내지의 공원 지정을 반대한 이래 1972년 해인사 범주사 등 주요사찰에서도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였습니다. 1986년 9·7 해인사승려대회에서도 공원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996년 ‘환경보전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경제적 수준만큼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정치사회 여건에 비추어 문화유산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우리 본말사 주지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지스님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_ 불기2553(2009)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_ 제15교구본사 봉도사 대웅전 앞
- 참 석 _ 조계종 본말사 주지
- 문 의 _ 진행실 02)2011-1923~4 기획실 02)2011-1732

불기 2553(2009)년도 전국본말사주지연수

우리 종단은 교육법 제105조와 제109조의 7항에 의거하여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의 본 종단 사찰주지스님께서는 무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 상 _ 본종 소속 사찰 주지스님
- 일 시 _ 2009년 7월 1일(수) ~ 2일(목) 1박2일
- 장 소 _ 제 15교구본사 봉도사 설립전
- 도 착 _ 7월 1일(수) 오후 1시까지
- 참 가 비 _ 100,000원 (당일 교장에서 납부)
- 준 비 물 _ 종단통일대가사, 장삼, 승려증, 세면도구
- 유의사항 _ ① 교통편은 본사에 1차 집결 후, 각 본사별 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올해 연수는 본말사주지결의대회와 연계해 1회만 진행하오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_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9

불기 2553(2009)년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직관

불기 2553(2009)년도 6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